

“완도 청산도슬로걷기축제서 치유·힐링하세요”

청산완보·범바위 기(氣) 치유·별별 버스 등 프로그램 다채

‘2024 청산도슬로걷기축제’가 지난 6일 유채꽃이 흐드러지게 핀 완도 청산도에서 개막해 오는 21일까지 다채롭게 펼쳐진다.

‘치유가 필요해, 청산도를 걸어봐’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치유와 힐링, 느리게 걷기를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대표 프로그램인 ‘청산완보’는 슬로걸 11개 코스를 모두 걷는 형식이다. 각 코스마다 스탬프를 찍어오면 주말에는 선착순 20명에게 전복을 제공한다. 4코스 이상을 걸어도 청산도 특산품을 받을 수 있다.

오는 13일과 20일에는 완도 전복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 촉진을 위해 완도소안수협 청산지점 일원에서 ‘전복 시식회’가 열린다.



‘신비의 바위’로 불리는 청산도 보적산 범바위에서 전문강사와 함께 하는 ‘기(氣) 치유’, 청산도 야경을 감상하는 ‘별별 버스’, 은하수 사진 촬영

후 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빛나는 청산도’ 등도 진행한다.

또 ‘줄길 쉼터’와 슬로걷기축제 캐릭터 팽이와 게임하는 ‘팽이를 이

겨라’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완도군은 4월 한 달간 청산도를 방문한 관광객이 여객선 승선권을 소지한 후 완도 해양치유센터를 방문하면 1층 프로그램 이용료를 30% 할인하고 청산해양치유공원은 이용료를 50% 할인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지정된 청산도가 세계가 인정하는 슬로시티로 도약하고 있다”며 “이번 축제의 주제처럼 여유롭게 슬로길을 걸으며 바쁜 일상 속 지쳤던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지난해 국제슬로시티연맹 총회에서 슬로시티 정신을 잘 실천한 도시에 수여하는 ‘오픈지달팽이 상’을 수상했으며 2025년 6월에는 국제슬로시티연맹 시장 총회도 개최한다. /완도=이두성 기자

나주 “주말에도 농기계 빌려줍니다”

4~6월 농기계 임대사업소 주말 비상근무 돌입

나주시가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아 농업인 편의 증진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소 ‘주말 비상 근무제’를 실시한다.

나주시는 벼농사 적기 이앙 지원 등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6월 16일까지 전체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

비상근무 실시 사업소는 동수동 임대사업소 본점을 포함해 남평·공산·문평·노안·금천·봉황 분점 등 총 7곳이다.

동수동 본점은 벼 이앙이 본격 시작되는 5월18일부터 6월16일까지는 토요일뿐 아니라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농기계 임대 업무를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영농 편의를 더해줄 이번 비상근무 기간에는 농기계 수리요원 17명이 투입된다. /나주=허필수 기자

농기계 임대를 원하는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권역별 임대사업소에 미리 전화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나주시는 전남지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총 7개 권역에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보유 임대 농기계도 영농철 굴삭기를 비롯해 퇴비살포기, 트랙터, 이앙기 등 124종·1513대에 달한다.

화물차가 없어 농기계 운반이 어려운 농업인은 임대 농기계 택배 서비스를 신청하면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다. 비용은 나주시가 70%를 지원하며 농업인은 30%만 부담하면 된다.

농기계 반납 시엔 전체 임대사업소에 설치된 ‘고압 셸프 세척 장비’를 이용하면 무료로 세척이 가능하다. 기종에 따라 1만~2만원을 부담하면 유료 세척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나주=허필수 기자

순천드라마촬영장, 새 단장

오는 22일부터 관람객 맞이

순천드라마촬영장이 오는 22일부터 새 모습으로 관람객을 맞이한다.

시는 드라마촬영장 활성화를 위해 ‘순천드라마촬영장 매점 등 체험 프로그램 운영’ 공모를 통해 새롭고 다양한 콘텐츠를 도입 운영한다고 밝혔다.

‘옛날다방, 화랑, 인력거&오락실, 사진관’ 등 새로운 콘텐츠가 도입되고, 주말과 계절별 이벤트로 관람객의 호응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그동안 인기가 많았던 교복체험은 교복은 물론 교련복, 영화의상, 시대의상 등 다양한 의상 체험을 마련했다.

‘옛날다방’은 커피와 미숫가루, 전통주제차 등을 시음할 수 있는 공간이다. 관람객이 직접 촬영장비를 사용하여 감성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사진관도 운영된다.

이 밖에도 지난 1일부터 시행한 반려동물 동반입장 시행에 따라 목줄, 입마개 등 반려견 용품도 매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순천드라마촬영장에 찾아오는 관람객들이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추억거리를 만들어 가지길 바란다”며, “절정에 맞는 다양한 행사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조순의 기자

해남군 “재생에너지 최적지 땅끝 해남에 투자하세요”

한국재생에너지 매칭포럼 참가… 솔라시도 ‘RE100 산업벨트’ 투자설명회

해남군이 RE100 전환을 서두르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투자유치 활동에 나섰다.

해남군은 8일 기업재생에너지재단(CREF)에서 주최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4 한국 재생에너지 매칭포럼”에 참가해 해남군 재생에너지 현황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B2B(기업간 거래) 현장을 참여했다.

기업재생에너지재단(CREF)은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무역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출연해 설립한 비영리 재단으로, 각종 정책지원과 함께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 활성화를 위한 수요-공급기업 간 교류 행사를 연례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제재생에너지 인증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삼성전자, 현대건설, 현대자동차, 네이버 등 재생에너지 100% 이행을 선언한 한국 RE100 멤버 기업들과 한국중부발전, 보성산업, 피브이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공



급기업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B2B 행사가 진행됐다.

특히 해남군은 기초지자체로는 처음으로 포럼에 참석, 개막행사 후 기조발표로 솔라시도 RE100 산업벨트에 대한 투자설명회를 가져 관심이 집중됐다.

발표에서는 ‘해남, 재생에너지 미래를 바꾼다’를 주제로 해남군이 추진하고 있는 솔라시도 기업도시 RE100 산단과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에 대해 설명했다.

또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목표로 조성되고 있는 솔라시도 기업도시의 각종 개발사업 현황도 알리는 자리가 되었다. /해남=김동주 기자

명현관 군수는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위한 기업들의 속도가 빨라지고, 한국의 기업들도 속속 RE100 이행을 선언하고 있지만 아직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솔라시도 기업도시를 이러한 기업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할 만한 세계적인 규모의 재생에너지 메카로 육성할 계획으로, 투자유치와 기업활동의 확실한 동반자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의 산이면 구성리 일원 2089만㎡(632만평) 규모로 2030년까지 1조 4400억 투입, 인구 3만 6600명 자족도시를 건설하고 있다. /해남=김동주 기자

광양, 이륜자동차 찾아가는 정기 검사

오는 15일~19일, 배출가스·소음 기준 충족 여부 확인

광양시는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륜자동차 출장 정기 검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출장 정기 검사 대상은 정기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2024년 6월 30일까지의 이륜자동차이다.

정기 검사는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와 소음(배기 소음, 경적 소음)을 측정해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의 배출허용기준 충족 여부를 판정한다.

출장 검사는 ▲15일 오전 진월면, 오후 진상면과 다압면 ▲16일 오전 옥곡면, 오후 광영동 ▲17일 오전 옥룡면, 오후 봉강면 ▲18일 오전 태인

동, 오후 금호동에서 실시되며, ▲19일은 출장 검사 추가 필요지역에서 진행된다.

검사장소는 ▲봉강면(치안센터 주차장) ▲옥곡면(옥곡보건지소 주차장) ▲옥곡면(옥구슬건강문화센터) ▲진상면(진상문화센터 주차장) ▲진월면(만덕 전이축제장 주차장) ▲다압면(삼진마을 주차장) ▲광영동, 태인동, 금호동(태양 동 주민센터 주차장) 등이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오후 4시이며, 12~13시는 휴식 시간이다. 검사 대상자는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보험 가입 증명서, 검사수수료 1만5천원(카드 가능)을 지참해 검사받으면 된다. /광양=조순의 기자

장흥군청소년수련관

아동·청소년참여기구 위촉식

장흥군청소년수련관(관장 하주자)은 지난 6일 ‘2024년 아동·청소년참여기구 위촉식 및 동아리연합회 발대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장흥군 어린이의회, 장흥군 아동권리모니터링단, 장흥군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 장흥군청소년참여위원회의 순서로 아동·청소년 참여기구의 위촉식이 진행되었다.

이어 동아리 동아리연합회 구성 알림, 동아리 인준서 수여식이 열리고 각 기구와 연합회는 오리엔테이션을 가져 올해 활동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린이의회와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은 아동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권리를 알리고 정책을 제안하는 기구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수련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을 모니터링하여 청소년시설의 주인인 청소년이 직접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장흥군 청소년 정책 발굴 및 제안을 담당하는 기구로 11월에 ‘청소년 정책 제안의 날’을 열 예정이다.

2024년 현재 장흥군청소년수련관 소속 동아리는 총 5개 동아리(공연 3개, 비공연 2개)로 총 75명의 동아리 연합회로 구성되어 있다. /장흥=임민기 기자

영암, 토지이동 처리 결과 문자 알림 3000건 돌파

휴대폰 ‘바로 알림 서비스’ 추가… 토지소유자 방문 불편 해소

영암군의 ‘토지이동 처리 결과’ 문자 알림이 3월 31일 현재 3000건을 넘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2월 영암군(군수 우승희)은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혁신 시책으로, 그간 우편으로 알려주던 토지이동 처리 결과 통보에 문자 방식인 ‘바로 알림 서비스’를 추가했다.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동 처리 결과를 알리는 기존 관행에 휴대폰 멀티메시지 알림 서비스를 더해 민원인에게 바로 처리 결과를 알리기 시작한 것.

민원 처리가 완료되면 바로 등기 완료 통지서뿐만 아니라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이미지 파일로 함께 문자로 전송해준다. 기존 우편 통지 방식은 토지이동 신청 민원이 접수되면, 결과를 통지하는데 대략 2~3주가 소요됐다.

이번 사정으로 토지소유자 등 민원민원인이 우편으로 결과를 받아보기 전까지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영암군에 전화하거나 군청에 방문하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

영암군의 서비스 혁신으로 토지소유자는 처리 결과를 우편으로 받은 다음, 다시 행정기관을 방문해 관련 지적공부 서류를 재발급받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있다. /영암=김형두 기자

목포시 ‘자매결연 40주년’ 자매도시 일본 벳푸시 방문

10여년 중단됐던 교류사업 복원… 김 수출 홍보

목포시는 자매도시인 일본 오이타현 벳푸시를 방문해 양 도시간 자매결연 40주년 기념식을 갖고 목포 김 수출을 홍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자매도시인 벳푸시가 ‘시정 100주년 기념식’에 목포시를 초청한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자매결연 40주년 기념식은 박홍을 목포시장과 나가노 야스히로 벳푸시장의 환영과 답례 인사가 있었다.

이어진 환담에서는 경제·관광·문화예술분야 교류재개 및 확대, 지역경제 동반성장 추구, 관광인프라 구축 협력, 대학교 간 유학·인턴십 등 교류방안 소통, 민간 교류활동 추



진 등을 약속했다. 목포시와 벳푸시는 지난 1984년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양 도시간 문화·예술 및 민간교류를 진행해 왔으나 최근 10여년간 코로나19 등으로 교류가 활발하지 못했다.

양 도시는 이번 결연 40주년 기념식을 기반으로 글로벌 과제에 관한 협력, 수출상품 진출, 관광객 유치, 미래세대 간 취업과 문화예술 교류 등 여러 방면에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고 경험과 정책을 긴밀히 공유키로 했다.

박홍을 시장은 “국제관광도시를 표방하는 양 도시로서 협력 여지가 많은 만큼 중단됐던 교류사업 복원에 이어 장기적·단계적인 새로운 협력과제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목포=김근호 기자

“대한독립만세” 함평군민들 4·8만세운동 재현

해보면 만세탑 광장·문장장터 일대서 행사 진행



함평군과 해보면청년회가 8일 해보면 문장리 3·1만세탑 광장과 문장장터 일대에서 4·8만세운동 추모식 및 재현행사를 거행했다.

4·8독립만세운동은 지난 1919년 4월 8일 지역의 애국지사 24명이 함평보통학교 학생들과 함께 장날 만세운동을 주도한 사건으로 훗날 만세운동의 도화선이 됐다.

함평군은 105년 전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행사 전날 7일에는 4·8만세운동 발원지인 월야면 낙연에서 제례행사를 열어 송고한 함평정신을 기리고 있다.

당일 행사에서는 이상의 함평군

수, 윤영랑 의장을 비롯해 유족, 주민, 학생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해보면 사무소에서 3·1만세탑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두루마기에 갓을 쓰는 등 당시 분장을 하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일본 헌병 분소를 기습하는 그날의 상황을 재현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조국을 위해 한 몸 바쳤던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에 무한한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그들의 뜻은 정신을 기약하고 받들어 더욱 굳건한 함평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평=김영희 기자

담양 ‘재가암 환자 가족 자조모임’ 참여자 모집

오는 11일부터 선착순 모집

담양군이 암 환자와 가족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자조 모임을 운영하고 8일 밝혔다.

이번 자조 모임은 재가 암 환자와 가족의 암 극복 사례 및 치료 경험을 공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심신의 안정과 재활 의지를 높이기 위해 진행된다.

오는 5월 2일부터 5월 30일까지 매주 목요일(오전 10시부터 12시), 5월

진행하며, 암 환자 건강관리 교육, 영양 식생활 강의 및 원예치료, 건강 체조, 한방 연구 만들기 체험, 공예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오는 11일부터 30일까지 선착순 20명을 모집하며, 담양군보건소 방문 보건팀으로 전화(061-380-3992)하거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이번 프로그램이 재가 암 환자와 가족들의 심신을 격려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담양=강성국 기자